

연변의 수석과 그 문화

[ 문화산책 ]



▲ 가야하 강변에서 수석 탐험에 나선 연변의 애석인들



◀ 기이한 형태와 이미지를 갖춘 명품 수석들

▼ 연변지역에서 나는 두만강 오석은 수석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장백산맥을 중심으로 두만강, 가야하, 홍기하 등 수많은 하천을 거느린 연변지역은 천혜의 수석 산지로 널리 알려져 있다. 연변지역에서는 침적암, 화성암, 변질암 계열에 속하는 산수경석, 문양석, 물형석, 추상석 등 수석의 모든 유형이 고르게 발견된다. 그중에서도 두만강 오석은 세계적으로도 드물게 보는 품종으로서 해외에서 인기가 매우 높다.

두만강 수석은 연변의 산하가 낳은 소중한 자연유산이다. 연변 사람들은 마땅히 두만강 수석을 잘 보존하여 후손만대에 길이 전해지게 해야 한다.

연변의 수석 문화는 30여년전 외국 석상들의 영향을 받아 잉태되기 시작한다. 사업자로 연변에 왔던 한 외국인이 왕청의 한 시골집 마당에서 엄청 잘생긴 대석 한 점을 보고 흠뻑 반하여 당장에서 그걸 매입해갔는데 인기 만점이었다. 연변에 좋은 수석이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급기야는 외

국 애석인들의 연변 붐을 일으키게 되었다.

많은 석상들이 연변에 찾아왔는데 그때가 90년대 초, 그러니 연변의 수석 채집은 외국 석상들의 영향을 받아 90년대 초부터 시작된 셈이다. 연변 사람들은 수석이 무엇인지도 잘 모른 채 외국 석상들의 어깨너머로 배우기 시작했다.

당시 대량의 수석과 정원석이 외지로 빠져나갔다. 외국 석상들의 연변행은 지난 세기 90년대 중, 후반까지 활발히 이어지다가 그후 여러가지 원인으로 발길이 뜸해졌고 요즘은 거의 끊겨진 상태이다.

그사이 연변에는 연변수석회, 연길시수석회, 연변두만강수석회, 연변수석문화협회 등 애석인 단체들이 속속 발족되었다.

그러나 합동 탐석, 수석 연구, 수석 전시회 등 구체적인 활동은 별로 전



개되지 못하고 수석의 저변 인구 확대도 뚜렷한 개선을 가져오지 못했다. 연변 수석은 비록 낚시나 등산에 비해 대중적인 붐을 형성하고 있지는 못하나 근자엔 전국적인 애석 붐의 영향을 받아 수석 열기가 서서히 다시 일어나고 애석 인구도 점차 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연변에는 도문시 두만강수석박물관, 량수 광동제약 수석박물관, 훈춘 방천 두만강수석박물관, 룡정 인하촌 수석박물관 등이 건립되어 연변 수석 문화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훈춘 방천 두만강수석박물관은 관광 코너에 편입되어 수많은 관광객들에게 두만강 정품 수석의 특이한 매력을 선보이고 있다.

연변의 애석 인구도 현저히 증가하고 애석인들의 수준도 높아져 몇 해전부터는 국내의 주류 수석계와 행보를 맞추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연변 향토석을 보존하고 지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보다 넓은 생각으로 다양한 산지의 다양한 수석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

광서성 류주, 내몽골 알샤, 하북성 석가장, 상해, 산둥성 청도 등지에서 해마다 열리는 국내의 대형 수석 전시회에 적극 참여하는 애석인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애석인 박관일은 상해에서 열린 '전국 수석 대전'에 두만강 오석 '복두꺼비'를 출품하여 은상을 거머쥐었고 김학성은 강소성 무석에서 열린 '국제 문양석 전시회'에서 두만강 수석으로 두개의 상을 동시에 타기도 했다. 그 밖에 애석인 김명순은 북경에서 열린 수석전에서 금상을 따내어 수석으로 상을 탄 중국 조선족의 첫 녀류 애석인이 되었다. 이는 본인들의 영광이기도 하지만 두만강 수석이 중국내 주류 수석계의 인정을 받았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

"수석은 인류의 최초의 문화이자 최후의 문화이며 조물주가 인간에게 내린 최고의 선물, 현대문화권에 진입하는 입장권, 인류의 공동언어, 가장 좋은 운동이자 취미..."라는 다양한 인식이 연변지역 애석인들 사이에서 차차 확산되면서 수석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의 반경이 점차 넓어지고 있다.

현재 연변 수석은 초기의 맹목성에서 벗어나 예술적 차원에서 수석의 본연에 다가서려는 움직임과 함께 점차 성숙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김학성 (연변수석 문화협회 고문)



우리의 명절과 기념일

중복의 유래와 풍속

- 신기덕 -

중복은 '삼복'의 두번째 복인데 하지후 네번째 경일부터 시작하여 립추후 첫번째 경일까지다. 중복의 일수는 매년 하지 절기후 세번째 경일이 나타나는 날자에 따라 10일 또는 20일 동안으로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다.

삼복은 매년 양력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 사이에 나타난다. 하지 이후에는 낮이 점점 짧아지고 밤이 점점 길어지지만 하루중 낮이 여전히 밤보다 길며 지면은 매일 발산하는 열량보다 흡수하는 열량이 더 많고 지면 근처의 온도도 나날이 높아진다. 삼복 기간에 날씨가 가장 덥다. 따라서 일년중 가장 더운 날은 하지에 나타나지 않고 하지 이후의 '삼복'에 나타난다.

고대에는 '간지기일법(干支記日法)'이 유행하였는데 10개의 천간(天干)과 12개의 지지(地支)에 어울리는 60개의 서로 다른 이름으로 날자를 기록하고 재활용하였다. 경(庚)자가 있는 날을 경일(庚日)이라고 한다. 경일의 경자는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계'의 10가지 천간중에서 7번째 글자이며 경일은 10일마다 반복된다. 경일이 나타나는 아침과 저녁은 중복의 길이에 영향을 미치므로 어떤 해는 복날이 30일이고 어떤 해는 40일이다.

삼복은 음력으로 6월과 7월 사이에 드는 속설로서 일명 '3경일'이라고도 한다. 삼복은 '매복(每伏)'과 '월복(越伏)'으로 나뉜다. 복날은 10일 간격으로 들기 때문에 초복에서 말복까지는 20일이 걸린다. 이처럼 20일 만에 삼복이 들면 '매복'이라고 하는데 속설에 매복이 들면 시질이 평탄하다고 한다.

복날은 10일 간격으로 오기 때문에 초복에서 말복까지는 립추 뒤 첫 경일이 말복이기 때문에 말복은 흔히 달을 건너뛰어 월복하게 된다. 말하자면 음력 6월에 들어야 하는 말복이 음력 7월에 드는 것이다. 이렇게 달을 건너뛰어 들면 월복이라 한다. 만일 월복이 되면 말복은 중복 뒤 20일 만에 오게 되므로 삼복은 소서와 처서 사이에 들게 된다. 속설에 월복이 들면 여름이 길고 무더위가 심하여 여름 나기가 힘들다 한다.

중복의 무더위를 쓴 정효(程暹)의 복일시(伏日詩)를 간단히 살펴보자. "평소의 삼복 때에는 언제나 한길에 지나가는 수레가 없었다. 문을 닫고 더위를 피해 누웠으니 드나들며 서로 찾는 일이 없었다."

초복에서 이미 개장국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복날에 중국에서는 양고기를 삶고 염소고기를 구워먹었으나 조선에서는 양이나 염소가 귀하므로 대신 '개'를 잡아 장국을 끓여먹었다. 또한 개고기를 못 먹는 사람들을 위해 생각해낸 것이 소고기로 흡사 개장처럼 끓이는 '육개장'이었다.

지금은 삼복철에 많은 사람들이 개고기보다는 삼계탕을 찾아먹는다. 삼계탕은 햇병아리를 잡아 인삼과 대추, 참살 등을 넣고 고은 것으로서 원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한다.



'피카소의 상상력 팩토리' 예술전 장춘에서

- 10월 15일까지 지속



7월 13일, '피카소의 상상력 팩토리(工厂)' 예술전이 장춘 만상성(万象城) 1층 전시실에서 개막되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공수해온 피카소의 진귀한 진필 원고와 판화 등 50여점이 전시되었는데 일부 작품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전시되는 것이다.

'피카소의 상상력 팩토리'는 피카소의 립체주의시기부터 말년까지의 예술 발전 과정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관객들을 피카소의 령감의 땅으로 안내하며 예술의 무한한 가능성을 체험하게 하는데 중국과 프랑스 두 나라의 문화교류와 상호 참조의 중요한 전시이기도 하다.

전시를 주최한 청택기업(상해) 문화예술발전유한회사 총경리 리재명(李梓铭)은 "우리는 예술 문화 회사로서 우수한 예술작품을 장춘

관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피카소의 예술적 성과와 영향력은 중국과 프랑스 문화교류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번 전시회는 장춘 관객들이 프랑스 문화의 독특한 매력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관객들에게 예술적 향수를 선사하게 될 것이다. 전시는 중국과 프랑스의 문화교류와 상호 참조의 무대를 마련한 것으로 중국과 프랑스 수교 60주년에 대한 선물이기도 하다."라고 전했다.

전시회는 피카소의 어린시절, 학업생활, 블루(蓝色)시기, 로즈(玫瑰)시기, 립체주의시기, 초현실주의시기, 지중해시기 등 7개의 장을



▲ 해설원의 설명을 들으며 작품을 감상하는 관객



통해 피카소의 많은 고전 작품들을 전시하고 피카소의 예술적 생애와 창작 성과를 보여준다. 전시회는 전문 해설사의 해설로 관객들이 마치 시간을 거슬러 피카소의 예술 세

계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느끼도록 한다.

관광객 리씨는 "피카소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술가이다. 아이가 평소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서 데리고 왔는데 명가의 그림을 보고 예술적 시야를 넓히면 앞으로 그림 그리기 령감에도 계발이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 글 사진 오건자

전시회는 10월 15일까지 계속된다. 작품 전시외에도 립체 장식으로 만든 피카소의 추상공간과 신체를 재조합한 피카소의 작품 큐브, 에스빠냐와 프랑스 스타일의 랑만적 코너 등 다양한 코너가 마련되어있다. 이런 혁신적인 디자인은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예술적 체험을 가져다 준다.

/ 글 사진 오건자



김해응 2023 《민족문학》년도 번역상 수상



▲ 수상차 려강시에서의 김해응

일전에 운남성 려강시에서 열린 2023 《민족문학》년도 수상식에서 중국인민대학 부교수 김해응의 번역작품 <투우사(斗牛士)>가 번역작품상을 수상했다.

원작의 정신세계를 깊이 발굴하고 소박한 언어와 류장한 문필로 원작의 문학적 정서를 독자들에게 완벽하게 펼쳐보였으며 풍부하고 다채로운 조선어 어휘를 재치있게 운용해 원작의 언어표현 풍격과 문화소양을 잘 전달한 점이 높이 평가된 김해응의 번역소설 <투우사>는 이쪽 작가 아무위뤄의 창작소설이다.

시상식에서, 앞으로 작품 번역이 AI 기술에 의해 대체되지 않을 건지에 대한 사회자의 물음에 김해응은 현재 번역 령역에서 인공지능이 뚜렷한 성과를 가져왔지만 풍부한 문화소양, 섬세한 감정 표현과 수식수법이 필요한 문학작품을 인공지능이 온전하게 전달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했다.

2010년에 설립된 《민족문학》년도상은 올해로 14회째 진행되고 있으며 19편의 작품이 2023 《민족문학》년도상을 수상했다.

/ 흑신